

## 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## FSA, IMF의 독립적인 경고체제 구축 주장

- 영국의 금융감독청(Financial Services Authority)은 각국이 IMF의 글로벌경제에 대한 경고를 자국의 이익에 비추어 왜곡시키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경고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행동을 비난하며,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함.
  - FSA의 Turner청장은 ‘금융위기전망 보고서’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IMF가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스템상의 취약부문에 대해 연속적인 경고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석되어 왔다고 주장함.
  - 이러한 그의 발언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감독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보고서 발표에 앞서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.
  - 2월 말경에 前 프랑스중앙은행장 주관으로 유로지역 감독체제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며, 3월에는 FSA감독청장이 동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, 이들 보고서는 4월에 개최될 G20회의에 의제로서 제공될 예정임.
- 2~3월에 발표될 글로벌 금융감독에 대한 보고서는 국제적 공조체제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, 특히 IMF와 같은 독립기관의 보고서는 경제 강대국의 압력 없이 사실대로 문제점을 기술하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임.
  - 과거 IMF의 금융시스템 위기와 관련된 경고는 강대국에 의해서 희석되는 부문이 많았는데 특히 미국의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IMF의 지적이 많은 부문 희석되었다고 언급함.
  - 따라서 향후 개선된 감독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IMF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압력으로 부터 벗어나 분석을 객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될 예정임.
- 한편, FSA는 최근의 아이슬란드 은행위기 사태를 예로 들면서 유럽지역내의 국경간 감독체제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.
  - 아이슬란드 은행위기가 유럽지역 전역에 퍼지는 시기에 영국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자국의 감독체제만을 준수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함.
  - 국경간 감독체제 공조 주장은 그동안 유럽연합은 Pan-European 금융 감독체제가 필요 없다는 영국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어 주목됨.

(Financial Times 2/9)